

濟州 初期 新石器文化와 對馬島 · 西北九州

康 昌 和*

〈차 례〉

- I. 新石器 初期의 自然環境
- II. 韓國 初期新石器時代의 設定
- III. 濟州의 初期新石器 資料
- IV. 對馬島 · 西北九州의 繩文時代 草創期 資料
- V. 濟州島 初期新石器 文化와 對馬島 · 西北九州

I. 新石器 初期의 自然環境

초기신석기에는 다양한 자연조건과 생태적 조건에 어떻게 적응하였는가에 의해서 문화권을 달리한다. 홍적세에서 충적세로 넘어가는 시기는 지구의 온난화시기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남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대마도와 북구주는 이 시기에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15,000 B.P.경에는 해수면이 제주도 아래쪽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이 시기는 일본에서 세석기 출현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해수면은 150m이하까지 내려가 있고 일본열도는 거의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12,000 B.P.경에는 제주도 안쪽지역으로 해안선이 형성되고 있으며 遼東半島와 山東半島 사이의 해저에서 12,400±120 B.P.의 탄소연대가 나타나고 있어 당시 황해는 육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점차 해수면이 상승하여 6,000 B.P.경에 현재의 해수면

*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수료(고고학), 탐라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까지 이르게 된다.¹⁾

따라서 10,000 B.P. 이전의 자연조건, 해수면의 변화에 따른 해안선은 지금과 사뭇 다르다. 황해는 표고 20~30m의 완만한 평원지대였으며 요동반도에서 흘러오는 여러개의 커다란 강줄기가 그 주변대지를 아우르고 있었다. 또한 남해안과 대마도-구주는 모두 연결된 하나의 대륙이었다. 제주도는 마치 종달리에서 우도를 바라보듯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육지가 있었다. 혹은 등고가 높은 곳은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10,000~6,000 B.C. 한국 남해안의 식생은 참나무, 버드나무, 호두나무, 느릅나무, 자작나무 등의 廣葉樹林이 늘어나면서 기후가 급속히 따뜻해졌다고 여겨진다. 일본 구주의 경우도 광엽·침엽수림에서 상록수로 다시 낙엽광엽수로 변화하여 점차 따스해짐을 알 수 있다.²⁾

II. 韓國 初期新石器時代의 設定

任孝宰는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토기는 강원도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용기문토기로 기원전 6000년경에 해당되나, 최근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기원전 10,000년경에서 6,000년경의 유물을 고산리유적 출토유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이 유적에서 출토된 석촉과 원시무문토기의 문화양상이 일본 愛媛縣 上黑岩遺蹟 6층의 유물과 유사함을 들고 그곳 측정연대가 10,085±320 B.P.로 알려져 있고, 아울러 고산리유적의 유물이 화산재 아래층에서 출토되는데, 이 화산재는 일본의 아카호야 화산재(6,800~6,300 B.P.)와 유사함을 들어 古新石器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³⁾

李東柱는 섬유질이 혼입된 토기가 일본의 승문시대 초창기 용기문토기유적에서 나타나고, 침두기들은 한반도 남해안 연대도, 상노대도유적에서 찾고 있으며, 석촉의 종류를 들어 일본 승문시대 조기의 유적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세석기, 굽개류, 다종의 석촉들의 공반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층위검토가

1) 이동주, 1996. 「한국 선사시대 남해안 유문토기 연구」, 동아대박사학위논문
 2) 신숙정, 1994. 「한국 남해안지방의 신석기문화에 대한 연구」, 학연문화사
 3) 임효재, 1997. 「신석기문화-편년」, 『한국사론』 12, 국사편찬위원회

필요하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河仁秀는 고산리유적의 석촉, 첨두기 등 석기조성면에서 일본의 승문시대 초창기의 것과 유사하고, 원시무문토기와 공반되는 점을 들어 기원전 1만년전 까지 올라가는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것으로 추정하였다.⁴⁾

高才元은 고산리 석기의 박편박리에서 얻어진 박편에 加壓技法에 의한 제작수법, 토기의 존재, 마제석기의 부재, 석촉을 중심으로 한 석기의 조합상 등을 들어 한반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양상으로 보고, 이러한 양상은 일본의 繩文時代 草創期, 初期의 문화와 연해주지방의 신석기시대 초기의 문화양상에서 비교연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석촉의 종류가 다양하여 시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⁵⁾

대체로 이들 자료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고산리유적의 유물조합상은 기원전 6,000년 이상으로 올라감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양상은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의 古土器 使用時期와 일본의 繩文草創期 유적에서 출토되는 자료와 비교해보면 동일한 유물출토 맥락을 갖고 있다.⁶⁾

Ⅲ. 濟州의 初期新石器 資料

1. 高山里 初期新石器遺蹟

고산리유적은 제주도의 서쪽 끝에 위치한 北濟州郡 高山里(자구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해안가에 발달한 높이 20m정도의 海岸段丘上에 자리 잡고 있다. 유적의 북쪽에는 해발 148m의 唐山峰, 남서편에는 해발 65m의 水月峰이 있고 유적의 동편에는 평탄한 대지 사이로 자구내(川)가 바다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유적의 서쪽 海上에는 遮歸島와 臥島가 있다.

- 4) 하인수, 1995, 「오산리토기의 재검토」, 『박물관연구논집』 3, 부산시립박물관
- 5) 고재원, 1997, 「濟州 高山里遺蹟 出土 打製石器의 形態的 分析」, 『한·일신석기문화의 교류와 제주고산리유적』, 한국신석기학회.
- 6) 강창화·오연숙, 1997, 「濟州高山里遺蹟發掘調査概報」, 한국사기학회 제22차전국학술대회발표요지.

유적은 1986년에 알려진 이후,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세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모두 細石器와 적갈색 原始無文樣土器가 출토되는 공통적인 유물양상을 보인다. 유물은 火山碎屑層 위에 형성된 黑褐色腐植土와 黃褐色粘土層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다. 石器유물은 각종 成形石器와 石核, 廢棄石材 등 수 만점이 출토되었다. 성형석기에는 화살촉, 찌르개, 자르개, 긁개, 푸르개 등 다양한 종류가 확인된다.

土器는 고산리식토기(原始無文樣土器)가 출토되었는데 사질태토에 보강제로 식물줄기를 혼입하여 소성한 것들이다. 器形은 鉢形, 碗形, 深鉢形으로 추정되고 底部는 대부분 平底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圓底도 확인된다. 文樣은 대부분 無文樣이지만 刺突文, 多齒具로 눌러 찍은 點列文, 爪文도 확인된다. 이와 함께 1987년 지표조사시 유적의 단애면에서 1개체분의 太線隆起文土器가 수습되었다.

1) 층위

고산리유적의 층위는 지표·시굴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단면을 통해 확인된다. 대체로 흑갈색부식토층(표토층)아래 黑色沙質土層-暗褐色風化土層-黃褐色粘土層-火山瑣屑堆積層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심문화층은 黑色沙質土層과 暗褐色風化土層으로 파악되었다. 해안절벽으로 갈수록 黑褐色腐植土와 沙質土層이 매우 두터워 그 두께가 무려 100cm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발굴대상지는 黑褐色腐植土層이 완전히 사라지고 흑색사질토층의 두께도 20~30cm정도로 매우 얇다. 따라서 文化層이 막바로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많은 유물들이 농경지 경작으로 인해 계속해서 문화층이 파괴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산리 층위는 유물이 지표에서 발견되고 있고 堆積層 자체가 기반암인 현무암층 바로 위에 형성되어 있으며 문화층이 비교적 두텁지 않아, 흑갈색화산풍화토층과 표토층이 막바로 이어지는 빈약한 퇴적상황을 보인다. 그리고 바다층인 황갈색점질토층의 상면이 불규칙한 면을 이루고 있고 이곳 지형이 하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토양이 유수에 의해 많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2) 유물

가) 석기

1997年 발굴조사에서 상층 출토 유물만을 분류·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화살촉 1,700여점, 긁개 50여점, 창끝 40여점, 조각칼 7점, 송곳 3점, 홈날석기 6점, 톱날석기 4점, 소형양면석기 30여점, 가공흔석기 300여점, 세형몸돌 20여점, 돌날 2,000여점, 石片 60,000여점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도구유물은 성형석기, 세형돌날과 몸돌, 폐기석재인 박편·석편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물의 90% 이상은 석기제작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石片들이다.

고산리유적의 암질은 안산암질 용결응회암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부 이암, 유문암, 혼펠스 등이 있는데, 한반도내의 신석기시대유적에서 보이는 흑요석 2점도 포함되어 있다.

(1) 成形石器

2次加工으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들로서, 加工位置나 잠정적인 기능에 따라 石鏃, 창끝, 긁개, 兩面石器, 송곳, 조각칼, 加工痕石器, 화살대연마도구(矢柄磨研石器)로 분류된다.

① 石鏃(arrow point)은 길이가 3cm내외의 것으로 횡단면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석기의 加工面은 兩面 2次加工 흔적이 뚜렷하다. 前面 2次加工이 주류를 이루나 석기의 끝부분만 잔손질한 것도 있다. 석촉의 형태적인 속성은 전체적인 형태, 底邊部の 形態, 器身部の 斷面形態, 스페부분의 형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高山里石鏃은 底邊部の 형태에 따라 無徑式, 有徑式으로 나눌 수 있다. 고산리에서 발견된 석촉은 有徑鏃이 無徑鏃보다 많은 양을 차지한다. 우선 無徑鏃은 스페부분이 없는 것을 말하며, 전체 형태는 삼각형이고, 중간부분의 횡단면은 三角形에 가까운 菱形과 렌즈形이 대부분이다. 유경촉은 스페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단면은 대부분 렌즈形이 주류를 이룬다.

② 창끝(point)은 첨두부분 및 양쪽면에 잔손질했으며, 대부분 길이가 5cm 이내 것으로 대부분 폭에 비해 길이가 2배이상 되는 것이다. 전체적인 형태로 볼 때 목엽형, 삼각형으로 양분되며 그 중에는 스페가 달린 것도 있다.

③ 긁개(scraper)는 兩面 2次加工이 아닌, 平面 2次加工으로 성형한 것이다. 따라서 작업날의 平面形態가 일정한 면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긁개는 작업날

부분에 따라 끝긁개(end-scraper), 한면긁개(side-scraper) 그리고 둥근긁개(round-scraper)로 區分된다. 그 중에는 1cm 内外의 손톱형긁개도 있다.

④ 兩面石器(biface)는 길이 3cm미만의 소형석기와 5cm이상되는 석기로 나누어진다. 대부분 소형양면석기이다. 이 석기의 하단부에는 양면 가공 흔적이 뚜렷하다.

⑤ 송곳(awl)은 드릴용으로, 이곳에서 발견되는 송곳의 대부분은 2차가공 흔적이 보이고 3개 이상이 능선의 각이 끝 부분에서 합일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⑥ 조각칼(burin)은 돌날 또는 剝片의 한쪽 끝에 타격을 서로 엇갈리게 해서 얻은 異面으로 된 조각날을 형성한 형태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수직이면 조각칼이나 직각면 조각칼은 보이지 않는다.

⑦ 加工痕石器는 일정한 가공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2차가공 흔적이 일부 배풀어져 있는 것들이다. 대부분 큰 석기들로 core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석기들은 대부분 석기제작과정에 있는 석기들로 파악된다.

⑧ 矢柄磨研石器는 화살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기이다. 주로 초지나 늪지의 대나무과(갈대)에 속하는 나무를 화살대로 사용했던 것으로 判斷된다. 이 도구는 화살대의 거친면을 갈면서 패인 'U'字形 홈이 관찰된다.

(2) 세형돌날과 몸돌

① 돌날(blade)은 간접떼기인 돌날떼기에 의하여 떼어내진 것으로 길이가 너비의 2배가 되는 것들이다. 돌날은 단면이 삼각형에 가깝고, 좌우 대칭되어 평행한 형태를 하고 있다. 고산리 출토 돌날은 대부분 2.5cm를 넘지 않는 세형 돌날이다.

② 세형돌날몸돌(micro blade core)은 돌날을 떼어내기 위한 몸돌을 말한다. 대체로 고산리 돌날 몸돌의 제작기법은 打擊面과 打擊方向을 기준으로 볼 때 자연면을 打擊面으로 사용하고 양면떼기로 작은 배모양의 형태를 만든 뒤 몸돌을 얻는 形式과 공기돌을 반드시 쪼개어 둥글게 격지를 떼어낸 다음, 아주 작은 돌날을 얻는 方式 등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몸돌의 복원 크기는 길이 5cm以上이 거의 없으며 맨 처음 떨어져 나간 기술격지도 길이 2cm 정도이다.

(3) 폐기석재

廢棄石材란 석기를 만들 때에 본래의 의도된 성형석기 외에 폐기되는 석재를 말한다. 이 석재는 인위적인 흔적이 없거나 2次加工 痕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석편들을 말하지만 실제 사용된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석재는 剝片 · 石片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고산리에서 발견되는 박편(flake)은 크게 석기제작을 위한 재료로 사용된 비교적 큰편에 속하는 박편과 잔손질로 인해 떨어져 나간 박편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산리 출토 박편들은 비교적 소형으로 크기가 3cm내외의 것이 대부분이다. 박편은 剝離面의 형상에 따라 폭에 비해 길이가 큰 박편과 폭의 길이와 비슷하거나 작은 박편으로도 세분된다.

② 石片(spall)은 아무런 2차가공 흔적이 없는 것들로서, 석기를 제작할 때 박편과 함께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나) 토기

(1) 高山里式 土器(原始無文樣土器)

이 토기는 모두 비점상태가 대부분 영성한 원시형 무문양토기이다. 이 토기는 토기전면에 그은 것이라기 보다는, 가는 풀잎 같은 것을 넣어 성형한 것들이다. 즉, 이러한 식물이 불에 타 없어지면서 빠져나간 흔적이 뚜렷한 토기들로, 이는 사질점토와 식물태토보강제를 혼합한 토기라고 볼 수 있다. 기형은 평저의 직립구연이나 약간 내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구순부가 밖으로 돌출된 형태도 확인된다. 아직 기형이 완전하게 복원된 토기는 없지만 그릇의 높이가 20cm 정도인 鉢形이나 深鉢形인 것으로 추정된다.

(2) 隆起文土器

이 용기문토기는 구연부 직경이 50cm에 이르고 넓은 아가리를 가진 것으로 두께는 0.8cm이고, 평저바닥이다. 전체적인 기형은 오산리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는 대발형이다. 용기문양은 그 굵기가 0.6~0.7cm, 높이가 0.4~0.5cm 정도 이 반원형의 비교적 굵은 점토띠로서 구연부 2cm아래에서부터 세 줄로 하여 장식한 태선용기문 혹은 용대문 형식을 갖춘 것이다. 위 첫줄은 수평을 이루지만 둘째줄과 셋째줄은 일정한 간격마다 각각 S자형과 포물선형으로 크게 휘어진 형상을 하고 있다. 동일한 모티브의 용기문 장식 토기로 부산 東三洞 貝塚 최하층 출토 예가 있는데 세줄의 용기문과 두, 셋째줄의 커브 모양은 영락없이 고산리 것과 같으며, 다만 동삼동 예에는 용기문 위에 각선 장식을 줌

춤히 배푼 것이 차이가 난다. 토기의 태토는 자갈한 모래가 섞인 점토질로서 적갈색 내지 황갈색을 띠고 있다. 그릇 안쪽면은 아무런 조정흔적이 없이 매끈하고 바깥면은 다소 마모되어 면이 거칠지만 원래부터 각선이 있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토기 파편이 떨어진 面으로 보아 적륜법으로 만들었음이 확인된다.

3) 유적의 성격

이 유적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신석기초기문화의 형성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한국신석기문화의 시작은 과거 만주·시베리아 지역과 토기의 樣式的 비교를 통해서 설명되어 왔을 뿐,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同一地域內에서 自體的으로 형성 가능성이 있는 新石器初期文化와 後期舊石器文化와의 關係에 대해서는 접근되지 않았다. 고산리의 遺物組合像은 우리나라 신석기문화의 黎明期, 즉 후기구석기말기문화와 신석기초기문화의 연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파악된다.

이 유적은 고산리식토기와 함께 수천점의 성형석기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토기와 관련된 석기조합상 연구에 중요하다. 한국 신석기유적의 거의 전부가 토기유물을 주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신석기시대 연구는 토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여서 토기형식의 분류와 변천, 그리고 지역성에 관한 연구가 주된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석기의 형식분류와 변천은 물론 그 제작기술과 용도 등을 통하여 당시 생활과 경제활동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고산리 유물자료는 토기와 공반하여 후기구석기의 발전된 눌러떼기법과 세형돌날석기가 계속 잔존하고 있어, 한국 신석기시대 연구에서 석기문화에 중점을 두는 연구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이 유적에서 확인되는 각종 세석기·고산리식토기·용기문토기의 조합상은 시베리아·연해주·만주·일본·한반도일대를 포함하는 동북아 신석기시대 초기 문화연구에 중요한 비교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이다. 고산리석기 제작방식인 눌러떼기수법의 석기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新石器時代 草創期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석기들이다. 일본열도는 繩文時代草創期(B.C. 12,000~8,000)에 세석기와 공반하여 토기가 등장하고 있다. 시베리아·沿海州一帶에서도 古土器出現時期(B.C. 13,000~10,000)에 이미 土器와 細石器가 공반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高山里遺蹟의 絶年代資料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東北亞 전체의 新石器初期의 細石器와 토기공반상을 비교해 볼 때 적어도 고산리 유물조합은 10,000년전까지 소급될 수 있다.⁷⁾

2. 金寧里 初期新石器遺蹟

제주도 동북편에 자리잡은 北濟州郡 舊左邑 金寧里(입산봉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남쪽에는 해발 84.5m의 立傘峰, 서남쪽에는 해발 116.3m의 猫山峰 사이의 평탄대지에 자리잡고 있다. 이 일대는 만장굴, 김녕사굴을 비롯한 크고 작은 동굴이 집중 분포된 洞窟地帶이기도 하다. 유적 주변에 河川은 없으나 해안에 湧泉水가 많아 사람이 거주하기에 알맞은 환경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고재원연구원이 작성한 『濟州金寧里遺蹟』 보고에 따르면, A2지구(김녕리 1087-1번지)에서 양호한 퇴적층이 확인되었으며 유물이 분포된 층위는 흑색화산회층하부(4층)와 황갈색점토층(3층)에서 대부분 출토되었다. 하지만 남아있는 황갈색점토층의 두께가 10~15cm내외의 얇은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위층의 흑색화산회층인데, 유적의 형성시기는 유물의 출토상황으로 볼 때 최소한 화산재층이 쌓이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화산재는 최소 2회 이상 쌓인 것으로 층위가 구분된다. 이 화산재층은 고산리유적도 이와 유사한 화산재층이 형성되어 있어 앞으로 상호 연계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의 분포범위는 A2구역 서편에 집중되어 출토 되고 있다. 유물은 타제 석기인 석촉과 굽개류가 대부분이며 일부 박편 등 석편들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범위나 유물의 분포로 보아 일시적인 소규모집단인 캠핑유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주된 주거지는 주변 동굴이 많으므로 동굴주거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石器는 화살촉을 중심으로 굽개, 찌르개, 成形石器등 잔놀러떼기로 날을 만든 細石器와 廢棄石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土器 역시 식물체를 혼입하여

7) 이청규·강창화·고재원·오연숙, 1997, 『濟州高山里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調查報告23

소성한 原始無文樣土器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일부 점토질계 토기에서 多齒具로 찍은 點列文이 확인된다. 이들 土器器形은 深鉢形, 鉢形으로 추정되며 底部는 圓底가 출토되었다.

보고서에 제시된 <유물통계표> 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김녕리유적출토유물 집계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1999, 『金寧里遺蹟』 보고서 인용)

피트명	석 기 (76%)										토 기 (24%)		
	성형석기				폐기석재						원시부문土器(1)	원시부문土器(2)	점열문
	석촉	꺾개	가공석기	찌르개	석핵	박편	돌날	석채	부스러기	석편			
A2-a			1			5			16	2	7		
A2-c	3		1	1		5	1	2		24	4		
A2-d									8			4	
A2-f	2	2	3	1	1	6		3	8	27		2	
A2-e	3					11	1		11	18	14	6	1
A2	4		1		2	7		3	20	11	19	5	9
A1	5	4	1		1	13		2	22	13	8	3	
A1					1	4			8	15	16		
합계	17	6	7	2	5	51	2	10	93	110	68	20	10
비율	10.5%(32점)				89.5%(271점)						14.4%(98점)		

석기구성은 성형석기의 양보다 폐기석재 양이 훨씬 많다. 특히 석기제작과정에서 떨어져서 나온 석편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적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성형석기 중 석촉과 같은 첨기형석기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냥과 관련된 경제행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성형석기의 규모는 5cm내외의 소형석기들이며, 특히 석촉의 경우 대부분 3cm이 내의 것들이다.

1) 유적의 성격

유적의 입지는 배후에 기생화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바다와 가까운 곳에 위

치하고 있는 점, 패총과 같은 유기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퇴적층위에 있어 화산재층 밑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점 등이 한경면 고산리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유물구성에 있어 원시무문토기, 석촉을 중심으로 한 소형의 타제석기들과 같은 유물조합도 거의 같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한반도에서는 알려진 바 없는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재원 1999).

고산리유적은 폐기석재의 비중이 80%에 이르며 성형석기는 후기구석기 전통인 눌러떼기 석기제작수법이 뚜렷한 2차가공석기들이며, 석촉을 중심으로 한 찌르개, 양면석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굽개, 찌르개, 새기개, 뚜르개, 일부 가공된 석기가 있다.

김녕리유적은 석촉의 경우 무경식석촉과 유경식석촉이 공존하는 것은 고산리 유적 석촉의 구성과 같은 현상인데, 석촉의 시간적 폭은 그리 크지 않음을 김녕리 유적을 통해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많은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고산리유적은 시기적으로 신석기시대 초기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김녕리유적도 고산리유적의 입지환경, 화산재의 존재, 고산리유적의 석기제작수법과 유사하고, 단편적이긴 하지만 유사한 석기구성 등이 고산리유적과 비슷한 시기에 유적이 형성되었거나 아니면 고산리 유적의 주민이 분파되는 과정의 유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아울러 고산리유적은 제주도 최서편에 자리잡고 있고, 김녕리유적은 동북편에 위치해 있어 하나의 일시 캄핑유적일 가능성도 있다.⁸⁾

IV. 對馬島 · 西北九州의 繩文時代 草創期 資料

1. 福井 岩陰遺蹟

西北九州의 長崎縣 北松浦郡 吉井 福井町에 있는 구석기시대 最終末에서

8)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9, 『濟州金寧里遺蹟』. 이 보고서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고재원 연구원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그가 보는 김녕리 유적에 대한 견해는 캄핑유적으로 판단하였다. 석기와 토기의 조합상을 분석한 결과 고산리유적과 동일한 시기의 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繩文時代 草創期 段階의 동굴유적이다.⁹⁾ 福井川の 침식작용에 의하여 削出된 사암동굴로 표고 약 80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河床面과의 높이 차는 약 3m이고, 규모는 내부폭 6m, 천장 높이 약 3m, 들리워진 길이가 12m이다. 오래전 부터 松瀬順一·吉田正隆에 의하여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는데, 제1차 조사는 1960년 일본 고고학협회 서북구주 종합조사 특별위원회 주체로, 제2차 조사는 1963년 일본고고학협회 동혈유적조사 특별위원회와 장기현 교육위원회, 그리고 제3차 조사는 同委員會와 장기현 교육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조사하였다.

동굴내에는 약 6m에 달하는 토층이 퇴적되어 있었는데 모두 15층으로 세분되며, 그 중 7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상층인 1,2,3문화층에는 토기가 공반되었다.

각 층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1층(제1문화층)은 繩文時期 初期 단계의 포함층으로 押型土土器와 타제석촉이 공반된다. 제2층(제2문화층)은 조형문토기(瓜形文土器)에 흑요석제의 단저형세석인핵과 세석인이 공반되고 있으며, 제3층(제3문화층)은 단저형세석인핵과 세석인, 용기선문토기에 용기문위주의 공반된다. 제4층(제4문화층)은 半圓錐形細石刃核(돌날몸돌)과 세석인(돌날), 안산암제 片面調整圓形搔器(스크레이퍼), 削器(나이프), 첨두기(포인트) 등이 출토하였다. 제5·6층은 유물이 없는 간층이며, 제7층(제5문화층)은 흑요석제 小石核과 小石刃이 많이 나왔으며 안산암제의 박편이 공반되고 있다. 제8층은 유물이 없는 간층이며, 제9층(제6문화층)은 안산암제의 石核과 異狀박편이 출토되었으며, 제10~14층은 유물이 없는 간층이며, 제15층(제7문화층)에서는 안산암질의 大型兩面加工石器·刃器狀 縱長剝片·橫長剝片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에서 모두 4개의 C¹⁴年代測定 결과가 나왔는데, 제2층이 12,400±400B.P, 제3층 12,700±500B.P, 제4층 14000±400B.P, 제7층 13600±600B.P, 제9층 13,130±600B.P, 제10층 10,700±300B.P, 제15층은 31,900B.P 보다 오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구석기시대 최종말기에 比定되는 세석기문화 단계에 용기문토기를 비롯한 토기문화가 공반한다고 하는 사실이 일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는 점과 함께 용기선문계 토기군이 세계 최고의 토기로서 繩文土器 始原論의 지표로 문제점을 제기한 의의는 크게 주목된다. 게다가 구주에

9) 麻生優一, 1984. 『泉福寺洞穴の發掘記録』, 日本考古學協會洞穴遺蹟調査特別委員會.

있어서 세석기문화의 편년이나 瀨戶內技法, 구주형 나이프형 석기 등의 석기 문화와의 상호관계 등 구주의 후기 구석기문화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2. 泉福寺 洞窟遺蹟

西北九州의 佐世保市 瀨戶越町에 있는 동굴유적으로 구석기시대에서 승문 시대 초창기를 중심으로 하여 平安時代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된 동굴유적이다. 相浦川 지류인 紋珠川の 오른쪽에 위치하는 표고 약 90m의 구릉 남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동굴이 자리한 곳은 하나의 암벽 밑에 4개의 그늘 면이 나란히 형성되어 있다. 내부폭 6m, 길이 약 30m의 규모이고, 바로 아래 급경사를 이룬 계곡 밑에 湧水가 있다.

이 유적은 1969년, 이 일대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의 신고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佐世保市 教育위원회는 麻生優一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이듬해인 1970년부터 10년간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다시 조사는 제1동굴을 시작으로 제4동굴, 제3동굴의 일부를 남긴 약 70%에 해당하는 면적이 발굴되었다.¹⁰⁾

동굴내의 토층은 모두 12개층으로 구분되었는데, 기반암 바로 위에 형성된 최하층에서는 구석기시대의 나이프형석기 문화층이 제1동굴 전정부의 아주 좁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그 상부에서는 세석기문화층이 가장 양호한 층위적 상태를 유지하며 두껍게 퇴적되어 있었다. 출토유물의 종류는 나이프형석기·搔器·削器·石核·細石器 등이 있다.

그리고 그 상부에서 확인된 용기문토기층의 최하부에서는 豆粒文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연대 측정결과 12,000B.P. 경으로 나타났다. 이 단계 동굴의 이용은 제2동굴, 제3동굴 전면으로 확대되어 있는 중에 두립문토기의 분포도 거의 같은 경향이 보인다. 豆粒文土器는 주로 용기선문토기보다 하층에서 출토량이 많아 용기선문토기의 분포는 두립문토기보다 넓고 포함층의 퇴적상태도 두껍다. 그 상층에는 조형문토기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그 위로 압인문토기, 압형문토기로 변화하는 층위적 사실이 확인된다.

10) ① 麻生優一·外, 1969, 「九州地方の洞窟遺蹟」, 『日本の洞窟遺蹟』, 平凡社.

② 市川榮太, 1980, 「泉福寺洞窟の年代研究と今後の課題」, 『考古學ツセナル』 172.

그리고 동굴의 이용상황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제3동굴에서 제2동굴로 이행되어 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압형문토기는 그 위로 넓게 제1동굴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繩文晩期나 平安時代까지 동굴이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굴내의 공간적 이용상황에 대하여 麻生優¹¹는 인근에 위치한 岩下洞穴遺蹟이나 下本山岩陰遺蹟의 조사에서 原位置論을 실천하여 성과를 얻고 있다.

한편 세계 최고의 토기가 된 豆粒文土器는 福井洞穴에서 제기된 繩文土器의 始原期를 보다 거슬러 올려보게 되었지만, 발달된 토기의 특징으로 보아 그 보다 선행하는 新型式이 존재할 가능성도 남겼다. 그리고 제2동굴에서 확인된 압인문토기 단계의 敷石狀遺構는 지금까지 없는 동굴의 공간이용 상황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출토 유물은 석기 75,730점, 토기편 3,225점으로 모두 78,955점이다.

1) 對馬島 越高遺蹟

1976년 上縣町教育委員會와 長崎大學醫學部解剖學實習室에서 발굴한 이 유적에서는 한국계토기에 대하여 '越高式土器'라고 명명되어 졌고 동 층위에서 남구주의 前平式系統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한국계통의 토기 편년은 승문시대 전기말엽으로 보고있다. 이 토기는 부산시 동삼동패총 것과 유사성을 주장했다.

석기는 鋸齒狀石鏃, 石鋸, 搔器, 石槍등 놀러떼기 수법으로 만든 것들로, 대체로 繩文草創期에 해당되는 것들이다.¹¹⁾

2) 對馬島 越高尾崎

앞서 越高遺蹟 근처의 해안변에 자리한 유적으로 이를 발굴한 坂田邦洋이 유적명칭을 부여하였고 그의 보고서에서 총 6개의 문화층을 거론하고 있다. 제1, 2층은 소바다식토기와 한국신석기시대의 토기가 소량 포함된 층이고 제3층은 도도로끼식, 세이깡식토기가 출토되나 한국계토기는 없는 층, 제4층은 도도로끼식토기, 세이깡식토기, 한국계토기가 혼합된 층으로 보고되어 있다. 하층

11) 坂田邦洋, 1976, 『對馬島 越高遺蹟』, 上縣町教育委員會・長崎大學醫學部解剖學實習室.

으로 갈수록 한국계토기의 점유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동시기의 출토 석기는 佐賀縣伊万里市 腰岳(고사다께)産이 가장 많다. 동 유적 6층의 탄소연대는 6,400±90 B.P.가 나왔다.¹²⁾

V. 濟州島 初期新石器 文化와 對馬島 · 西北九州

본고에서 다룬 濟州島의 高山里遺蹟, 金寧里遺蹟, 西北九州의 泉福寺洞穴遺蹟, 福井岩陰遺蹟, 對馬島의 越高遺蹟, 越高尾崎遺蹟은 모두 토기와 세석기를 내는 유적이다. 다만 대마도내 유적은 다른 유적보다 다소 후행하는 유적이다. 지금까지 살핀 제주도과 대마도, 서북구주 초기신석기문화의 일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 일반적으로 日本의 繩文時代 편년을 草創期(12,000~8,000), 早期(8,000~5,000), 前期(5,000~3,000), 中期(3,000~2,000), 後期(2,000~1,000), 晩期(1,000~300B.C)로 나누어 정리한다.

한국의 경우는 古期(古新石器, 10,000~6,000), 前期(6,000~3,500), 中期(3,500~2,000), 후기(2,000~1,000 B.C)로 정리하였다.¹³⁾

결국 한국에서 古期는 일본의 繩文시대 초창기와 초기 중엽까지인 셈이다. 8,000 B.P. 이상 올라가는 유적은 고산리와 김녕리유적 뿐이다. 물론 이동주는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해수면의 변동과 용기문토기의 전개양상을 추적하면서 기원전 10,000년까지 한국 신석기시대의 상한을 올렸다. 이는 주변지역인 일본과 연해주 신석기초기양상과 종래 한반도 신석기전기 용기문토기의 전개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견해에서 출발한 것이다.¹⁴⁾

고산리유적에 대한 이동주의 시각은 고산리식 원시무문토기와 용기문토기는 같은시기에 사용했던 토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최고의 토기는 고산리토기라는 점은 인정하되 그것은 지역적인 양상이며 전체적인 흐름은 용

12) 坂田邦洋, 1976, 주11)과 같은 책.

13) 임효재, 1997, 주3)과 같은 책.

14) 이동주, 1995, 주1)과 같은 책.

기문토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산리유적의 경우 분명 전체 토기 중 용기문토기의 양은 1%를 넘지 않으며 대부분이 고산리식 원시무문양토기이다. 때문에 세석기와 공반되지 않는 한국본토의 용기문토기보다는 세석기와 공반하여 다량 출토되는 고산리식토기가 先行한다 할 것이다.

2.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일본 최고의 토기는 동경근처의 上野(가미노)에서 출토된 말각 용기문토기와 서북구주 센부쿠지 출토 두립문토기이다. 이 두 토기의 탄소연대는 12,000 B.P.이다. 참고로 아무르강 하류의 가샤유적 출토 평저평행침선문토기가 12,960±210 B.P.이고 몽고근처의 자바이칼지방 우스트-카흐라유적 출토 토기는 12,595±250 B.P가 나왔다.¹⁵⁾

제주 고산리와 김녕리유적의 유물 공반관계는 일부 압인문토기와 용기문토기편이 섞여 있으나 발굴된 지점의 층위적 불안정으로 인해 공반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 분명한 점은 후기구석기만기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몸돌은 아니나 세형돌날몸돌과 돌날, 눌러떼기 수법으로 만든 양면석기, 화살촉, 찌르개, 자르개, 긁개, 뚜르개가 공반 출토된다. 또한 이들 석기와 함께 고산리식토기(原始無文樣土器)가 함께 출토되었다.

일본 구주지방의 경우 선토기시대(12,000B.C이전)에서 繩文草創期로의 이행은 자연스럽다. 그러한 이행과정은 본고의 후쿠이 岩陰유적과 센부쿠지 洞穴유적의 층위에서 잘 나타난다. 여전히 초창기에 와서도 두립문토기, 용기문토기와 함께 細石器(세형몸돌, 돌날, 스크레이퍼, 긁개, 자르개)와 공반하고 있다. 고산리와 김녕리 유물조합도 구주지역 선토기시대에서 縄文초창기로의 이행과정과 축을 같이 하는 것이다. 확대하여 이러한 유물출토양상과 조합상은 시베리아, 연해주지역의 후기구석기에서 古土器時代로의 이행과정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동북아 전체의 흐름인 셈이다.

3. 또한 부산 동삼동유적과 관련된 한국계 유물이 繩文初期에 對馬島에서 다량 발견되는 시기는 현재의 해안선과 달리 매우 가깝게 서로 위치하고 있

15) V.Medvedev, 1993, 「Early Neolithic of the Lower Cis-Amur」, 『제2회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논집』.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로의 지리적 인접시기에 동삼동 용기문토기-고산리 태선용기문토기-대마도 越高式土器는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고산리 용기문토기는 고산리식 무문양토기보다는 늦은 단계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고산리와 김녕리에서 출토되는 식물줄기로 성형된 원시무문양토기는 한국 본토의 신석기유적에서 발견된 바 없는 특이한 토기이다. 반면 연해주 아무르강유역의 초기신석기유적과 블라디보스톡근처의 액티노브카유적에서 식물줄기로 성형한 토기가 확인되며¹⁶⁾, 센부쿠지 洞穴유적 출토 豆粒文土器의 경우 동물의 털로 성형한 토기로 알려져 있다.¹⁷⁾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고산리식 원시무문양토기가 연해주와 시베리아 별판에서 확인되고 한국 본토 및 대마도, 일본지방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은 드넓은 별판을 무대로, 사냥과 연관된 초원문화와 관련 있다고 보아진다. 산악중심의 대마도, 서북구주지방에서는 이러한 이유에서 확인되지 않는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100~60m 정도 하강한 상태의 황해 별판에서는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영일만해저와 북구주 長崎縣魔島床遺蹟과 西唐津海底遺蹟의 해저 20~30m 지점에서 이시기의 유물이 확인된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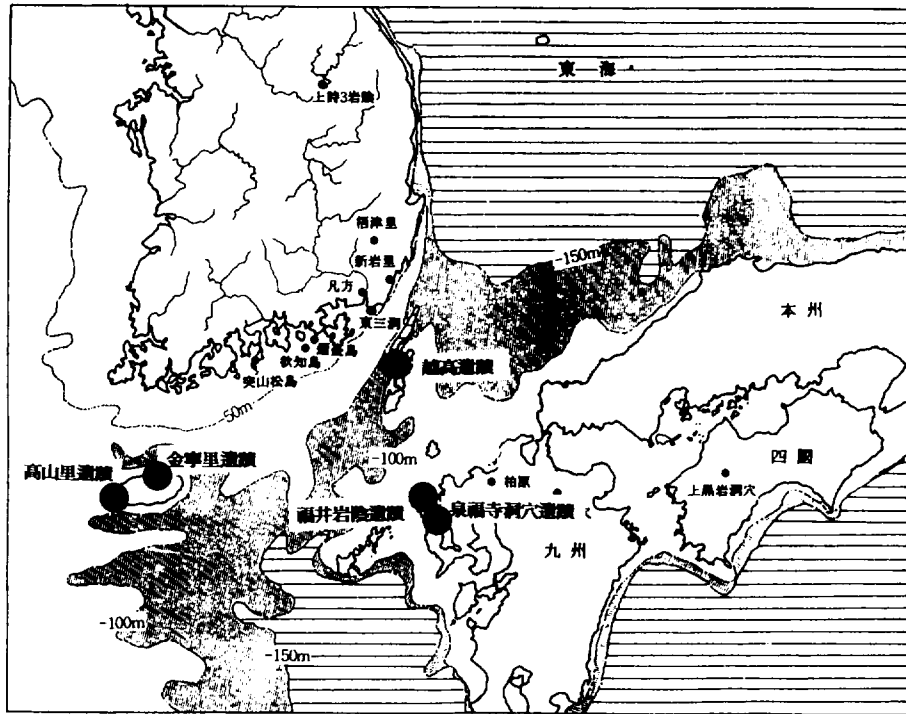
16) 筆者가 직접 현지에서 확인하였으며, 연해주 역사고고연구소의 리나코로렌코 박사에 의해 보고서가 집필 중이다.

17) 横浜市歴史博物館, 1996, 『縄文時代草創期』資料集, P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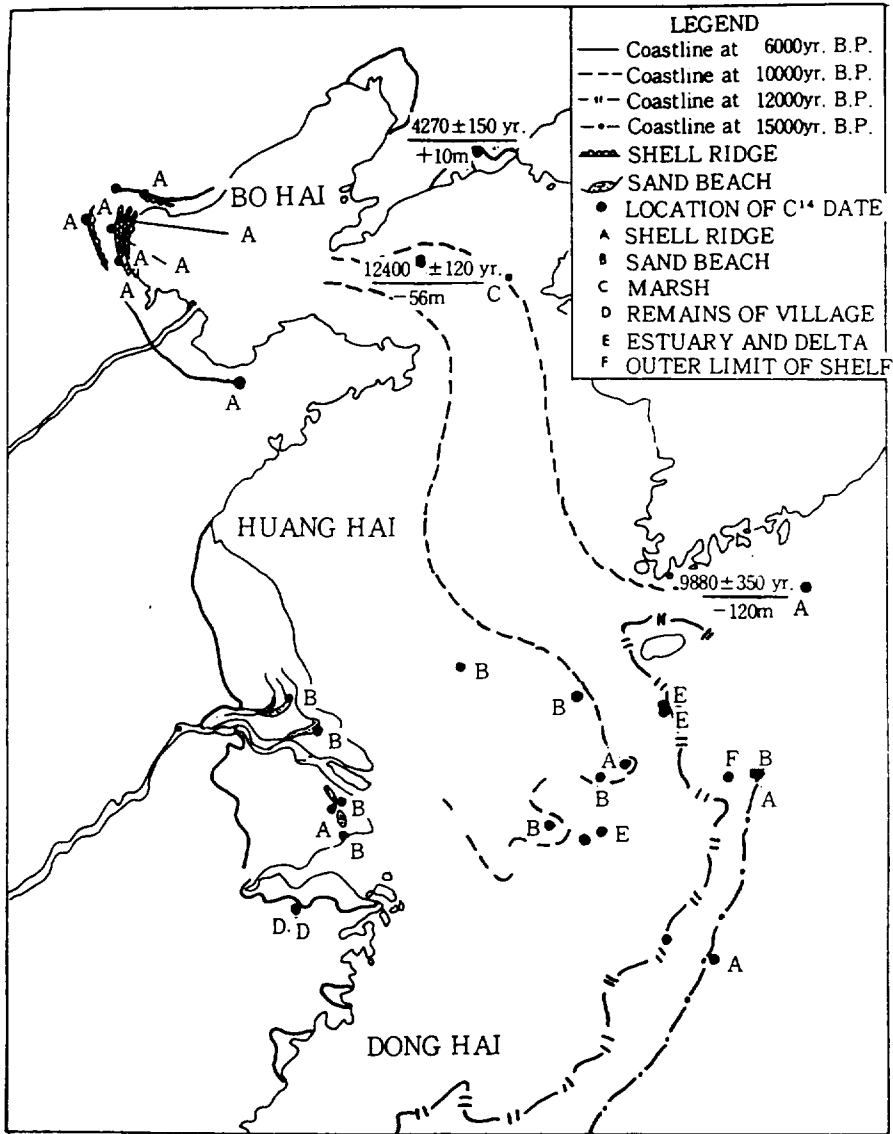
18) ① 이동주, 1995, 주1)과 같은 책.

② 木村幾多郎, 1993, 「海面下 25mの縄文時代遺蹟の諸問題」, 『第7回釜山-九州考古學合同研究會發表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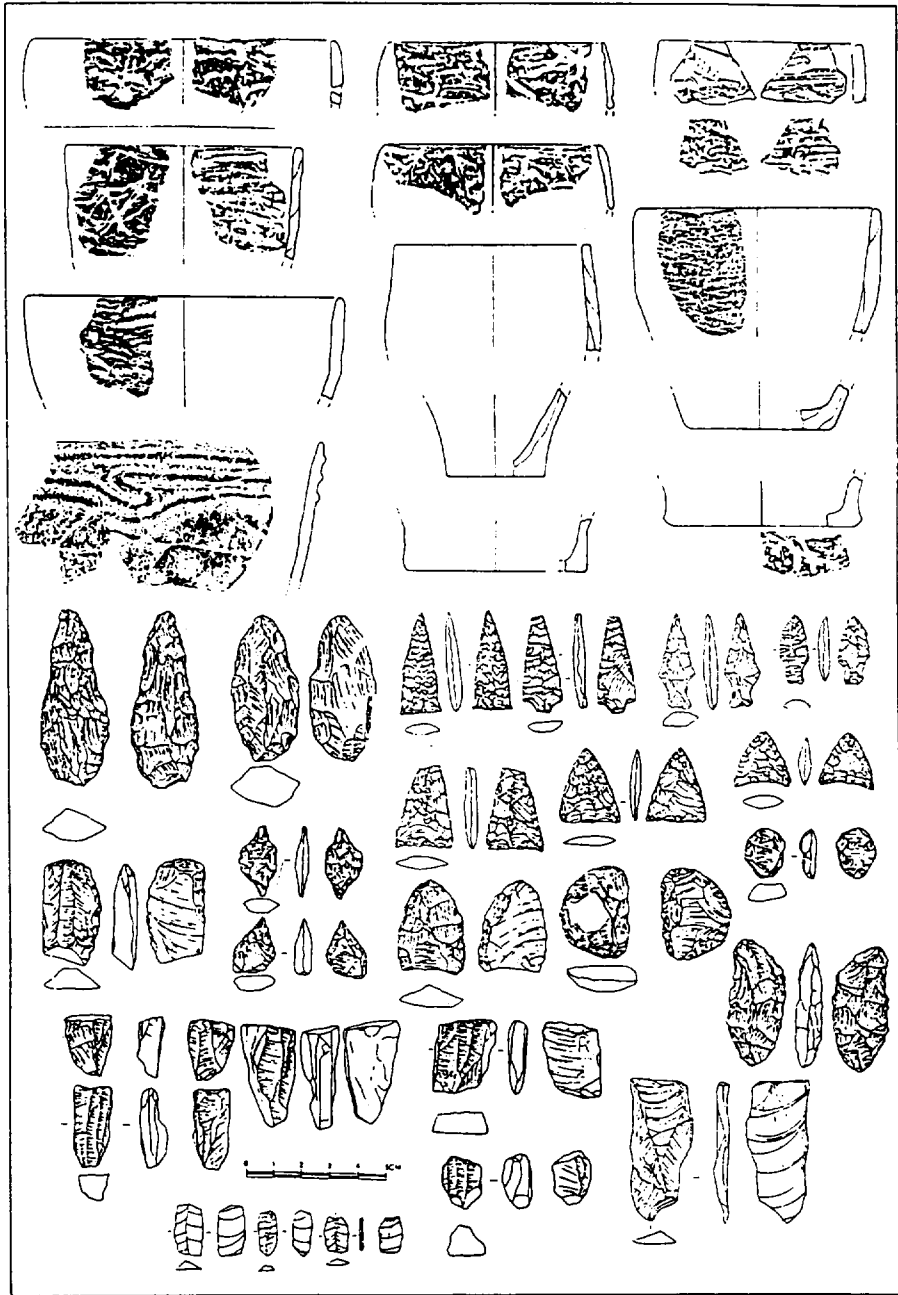
③ 宋岡史, 森醇一朗, 1981, 「佐賀縣西津海底出土の縄文土器」, 『考古學ヅセナ』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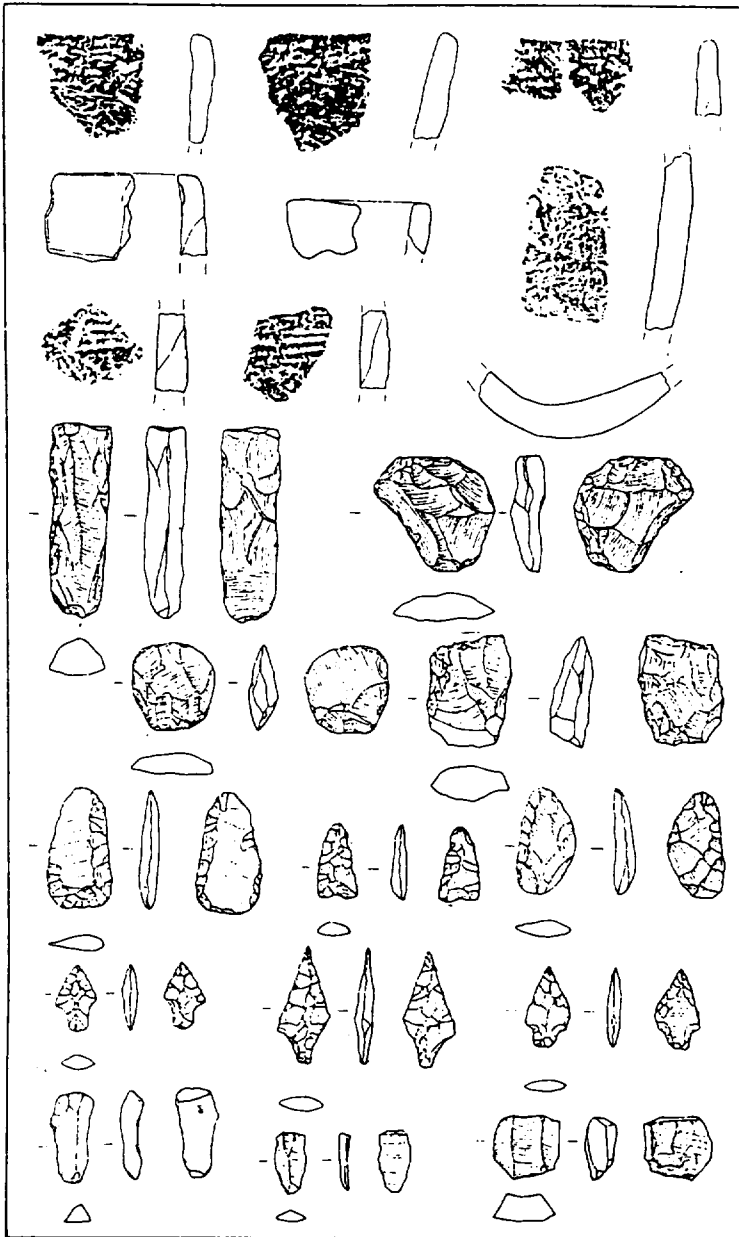
도면 1. 한·일해협 해저지형도와 본고의 비교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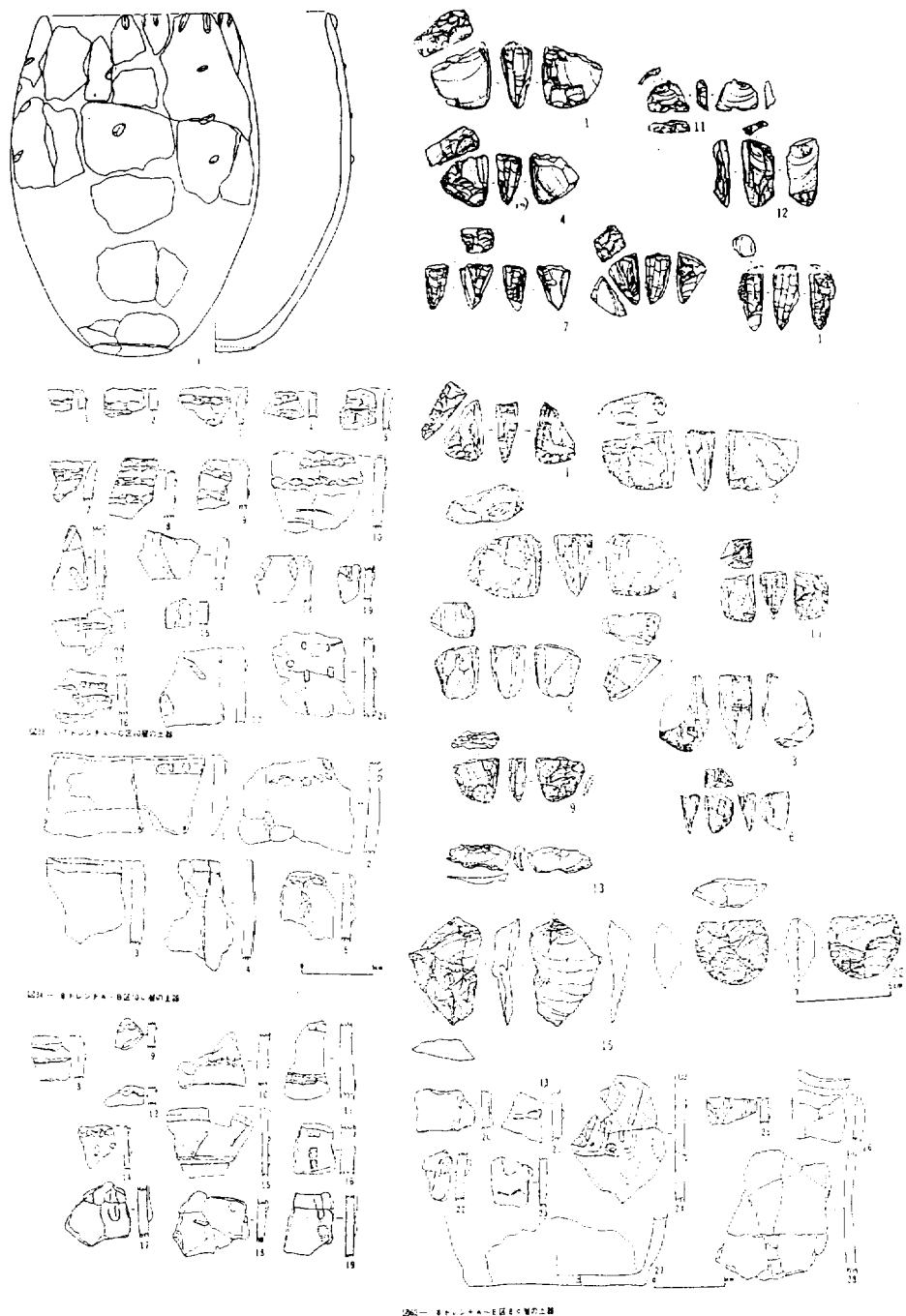
도면 2. 15,000 B.P. 이후 동중국에서의 해안선 변화(Huang, 1984: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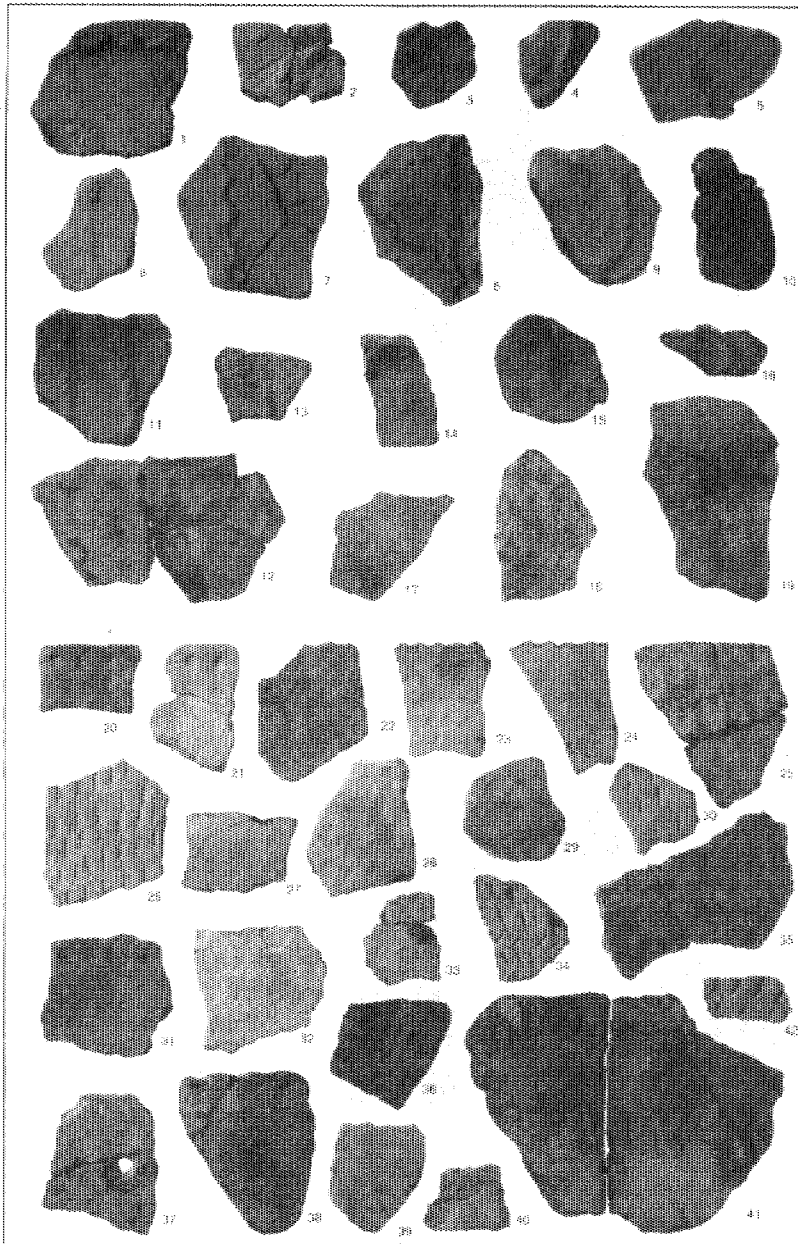
도면 3. 고산리 유적 출토 중요유물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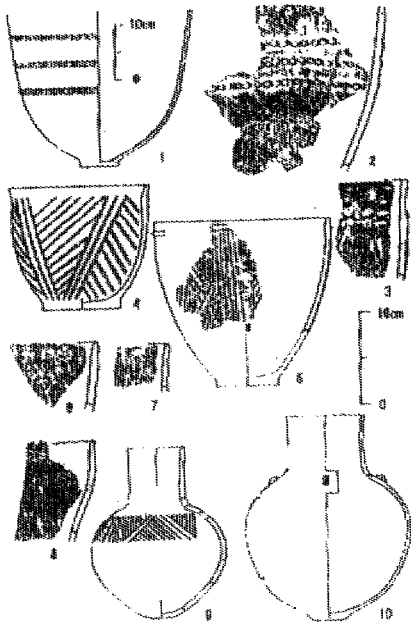
도면 4. 김녕리유적(2) 출토 중요유물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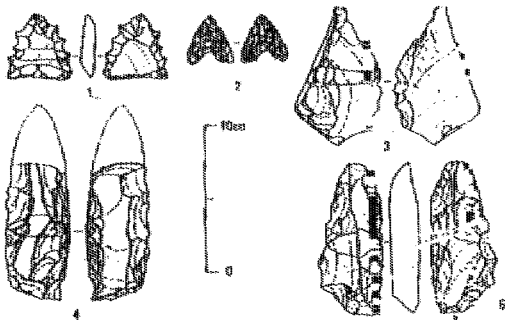
도면 5. 서북구주 센부쿠지 동혈유적 중요유물



도면 6. 서북구주 후쿠이 동혈유적 중요유물



- 越高遺跡出土の遺物①
 一朝鮮半島系の土器一
 (『韓國新石器土器の研究』(1978)により作成)
 1~3 越高Ⅰ式 刻み目のついた太目の粘土帯が特長
 4・5 越高Ⅱ式 ミミズ顔れのように盛りあがった斜い粘土帯が特長
 6・7 越高Ⅲ式 ヘラでつけた線(沈線)の斜めの格子文様が特長
 8 越高Ⅳ式 口縁部が波形になっている
 9・10 越高Ⅴ式 紐い野と孔のあいた把手を特長とする甕型



- 越高遺跡出土の遺物② 一石器一
 (『韓國新石器土器の研究』(1978)により作成)
 1 石鏃(組合式底頭) 2 石鏃(矢じり)
 3 磨盤(片もの) 4・5 石槍

도면 7. 대마도 越高遺蹟 출토유물